

# “문화유산은 삶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죠”

고유문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삶을 꿈꾸게 하는 민속학자  
아마레스와르 갈라 덴마크 인클루시브 박물관장  
글/사진 박소영



아마레스와르 갈라(Amareswar Galla) 덴마크 코펜하겐 인클루시브 박물관장은 한국과 인연이 깊다. 민속학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이자 교수이며 열정적인 활동가인 그는 세계문화유산지역에서 문화를 통한 빈곤완화사업을 펼치고 있다. 갈라 교수는 베트남 하롱베이와 호이안 개발, 인도 다즈질링 히말라야 철도 사업을 통해 문화유산이 지역사회에 경제적인 부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다. 이러한 성과에 대해 처음 귀 기울여준 나라가 바로 한국이었다.

인도 다즈질링 히말라야 철도(옆)  
베트남 하롱베이(아래)  
세계문화유산 지정 후 최고의 관광지와 영화촬영지로 인정받고 있다.





### 13년 전 한국에서 초청받아

“13년 전 한국의 대학에서 박물관 컨퍼런스가 열렸을 때 처음 초청받았어요. 이후 기초연설자로 한국을 자주 왔어요. 한국, 베트남, 남아프리카공화국을 가장 많이 가요. 그만큼 애정도 많고요. 지난해에는 청주국제비엔날레에서 강의했고, 최근 세종시에서 초청받아 기초발제를 하고 왔죠.”

하롱베이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됐을 때 갈라 교수는 22가지 플랜을 갖고 정부의 개발계획에 참여했다. 그 결과 1만 3600개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지역민을 교육시키고 스스로 참여할 기회를 만들어줬다. 그가 베트남에서 마지막으로 한 프로젝트는 박물관장의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맞추는 일이었다고 한다.

갈라 교수는 1994~95년 남아프리카 공화국 만델라 대통령 재임시절 국립공원을 계획하는 데 정책 고문을 맡아 일했다. “그 전에는 백인들만이 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어요. 흑인이 들어오면 강제로 추방을 당했죠. 만델라 대통령은 모든 사람들이 공원을 이용하기 바랐어요. 정부가 지원하되 지역사회가 운영권을 갖고 자립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줬죠. 그 결과 일자리가 4배 이상 창출되는 효과를 냈어요. 만델라 대

통령 재임시절 5년간 문화적인 사업에 고문을 맡아 일을 도왔죠.”

### 문화유산의 가치 다시보기

그에게 중요한 것은 문화유산이 갖고 있는 가치다. 그 가치가 돈으로 환산될 수 있으며, 이는 지역사회의 삶을 더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고 확신한다. “문화유산을 사회에서 지켜낼 수 있다면 경제적인 창출효과를 가져올 수 있어요. 사회의 지속성도 확보할 수 있고요. 가난한 나라에서 낮은 지위로 태어나도 그 자체로 충분한 가치를 지닐 수 있어요. 저도 어린 시절 굉장히 가난하게 보냈어요.”

갈라 교수는 인도에서 태어나 인도에서 공부를 마쳤다. 인도 뉴델리 자와할랄네루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전 세계를 무대로 활동하고 있다. 유네스코에서도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는 최근 유네스코한국위원회가 펴낸 <세계유산, 인류를 위한 혜택>이란 책에서 안동지역 하회와 양동마을에 대한 연구 논문을 쓰기도 했다. 이 책은 세계문화유산 40주년을 맞이해 간행했고, 세계유산지역의 사례 연구를 모은 것이다. 모두 지

속가능한 발전이라는 맥락 속에서 가치를 지닌 곳들을 선정해 소개했다. 지역사회의 총체적이면서도 통합적인 역할, 생태계의 문제 등 문화다양성의 관점에서 서술했다. 하지만 사람들은 발전의 개념에 문화적인 요소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라오스, 미얀마, 이디오피아, 파푸아뉴기니는 보기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가난한 나라이지만 문화적인 요소는 어마어마한 부자예요. 파푸아뉴기니는 가장 많은 언어를 쓰는 나라이기도 하고요. 문화라는 것은 평생 해야 할 비즈니스이며 발전을 이야기할 때 반드시 평가돼야 할 요소예요.”

갈라 교수는 지속성에 대한 리서치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이를 4가지 기둥으로 설명했는데 바로 경제, 사회, 환경, 문화였다는 것. 그 가운데 갈라 교수는 문화를 가장 집중해서 연구한다고 했다. “의자다리가 3개만 있으면 쓰러지잖아요. 4번째가 문화라는 기둥이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문화의 공정성을 찾는 일이지요.”

### 민속학은 곧 우리들의 삶이다

갈라 교수는 한국에서도 하고 싶은 일들이 많다. 몇몇 지자체와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의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했다. “해남 땅끝마을은 너무나 아름다워요. 나중에 해남에서 정착해서 여생을 마감하고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 매력적이었어요. 동강도 은은하게 흐르는 강과 자연이 멋지고요.”

그에게 동강에서 래프팅을 타봤냐고 묻자 손사래를 쳤다. “래프팅은 환경을 망치고 있어요. 그 곳에 유명한 할머니가 한 분 계신데 민박집을 운영하세요. 그 분이 막대기 들고 다니면서 개발하는 사람들을 쫓아냈다고 해요. 동강에 가서 만났는데 언제든지 놀러오면 방을 내주겠다고 했어요.(웃음)”

갈라 교수는 지역이 갖고 있는 고유성을 통해 많은 이야기를 만들어낸다. 민속학자인 그가 내리는 민속학에 대한 정의 또한 흥미롭다.

“할머니가 계신가요? 할머니들은 대부분 차 마시는 걸 좋아하죠. 오래된 주전자가 하나쯤은 있을거예요. 사람들은 그 물건이 박물관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할머니는 차를 마시면

서 많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데 사람들은 주전자의 무늬와 라인만을 보려고 하죠. 할머니의 이야기에는 관심이 없어요.” 갈라 교수는 주전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할머니와 나와 관계라고 강조한다. 그의 비유는 또 다시 이어졌다. “할아버지가 과거에 전쟁터에 가서 편지를 썼다고 해요. 그걸 우리들은 박물관에 넣어야겠다고 하지만 사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알지 못하죠. 마찬가지로 200년 된 집이 있으면 사람들은 보전부터 하려고 해요. 문화재 지정만을 따로 떼서 생각하고 의미부여를 하기 바쁘지 할머니가 그 집에 살았다는 것을 잊어버리죠. 더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 안에 문화가 녹아있다는 것이죠.”

그의 설명대로라면 민속학은 그리 멀리 있는 학문이 아니다. “문화유산은 모든 게 융합돼 있어요. 삶과 분리하는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엄청난 것도 아니고, 바로 삶 가운데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유네스코 위원회가 세계문화유산을 결정하는 일에서도 보이지 않는 갈등과 분쟁이 내재돼 있다. 누군가에는 전쟁의 전리품이지만 이는 곧 누군가에겐 상처의 흔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21세기는 국경이 없어요. 인터넷과 미디어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것도 그렇고요. 국경을 넘어서 일을 해야 하는데 사람들은 대부분 틀 안에 갇혀있죠. 대부분의 분쟁은 역사로부터 와요. 그래서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이해하려는 노력을 할 때 분쟁과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봐요.”

갈라 교수의 할머니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서양의학을 접한 신 여성이었다고 한다. 의사들은 진단을 내리기 전 유전적인 요소, 지병 등 다양한 요소를 분석해 처방전을 내린다. 이처럼 국가 간의 분쟁과 갈등도 상황적인 요소가 복잡하고 저마다 시대상황과 역사성이 충돌하면서 벌어지기 때문에 열린 마음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이날 인터뷰는 2월 중순 인사동에 있는 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창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고, 갈라 교수는 연신 “내리는 눈이 참 아름답다”며 감탄사를 연발했다. ☞